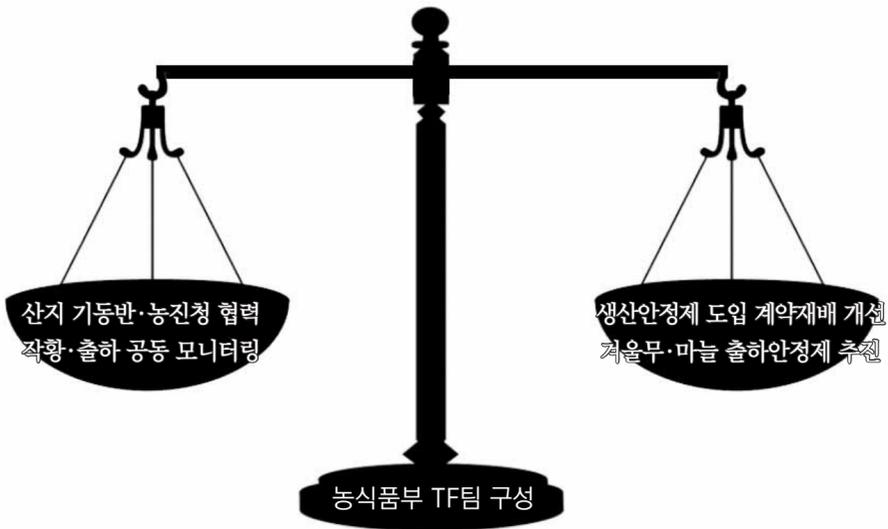


농산물 수급 정확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수급조절 TF'를 구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동향 및 대책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농축산물 수급 증장기대책으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농업관측이 수급조절에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KREI(농업관측센터), 통계청,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하고 정확도 제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한 통계조사 대상 및 방법 차이로 인한 수급조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본선정, 조사기간 및 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현재 배추에만 운영중인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양념채소류에도 시험도입해 생육 및 단수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산지 기동반을 운영하고 농진청, 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지 작황 및 출하동향 모니터링을 공동 실시키로 했다.

채소류 계약재배도 개선한다. 계약재배 사업이 농가소득안정과 수급조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채소류 생산 및 출하안정 사업을 개선하고 배추, 양파 등 가격 등락이 심한 품목은 계약물량에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농업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수급조절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농협전남지역본부의 양파 톤백(Ton bag)수매 현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에 따라 올해 고랭지, 겨울배추, 양파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30억원 규모의 생산안정제를 내년에는 겨울무, 마늘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계약주체를 다양화하면서 고정수요처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는 출하안정제도 추진한다.

이 밖에 유통공사의 수급안정 기능도 강화된다. 단기적으로는 재배면적 감소 등 공급감소로 주요 채소류 가격 상승에 따른 긴급 수급비축을 추진하고 구조적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상시 수매비축 확대와 계약재배사업 기능이 강화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촌 좋지만 농사는 NO”

귀촌, 3만3442명...2년새 두배 급증

귀농, 1만1200가구서 56명 줄어

귀촌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귀농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귀농·귀촌가구 분석결과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귀촌인구는 1만5788가구에서 지난해에는 3만3442명으로 110% 증가했다. 반면 귀농인구는 1만1200 가구에서 1만114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가구원수별로는 귀농과 귀촌 모두 1인 가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4년 기준으로 총 4만4586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2만3501가구로 52.7%를 차지했다. 2인가구는 1만1321가구로 25.3%였다.

눈에 띄는 것은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귀농·귀촌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가구원별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1인가구 및 2인가구가 각각 30%, 42.5% 증가했다. 3인가구는 56%, 4인가구는 48.3% 늘었다.

귀농과 귀촌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은 이차보전예산과 지원예산을 모두 합쳐 354억원으로 전년 356억원에 비해 2억원 줄었다. 이차보전 예산이 12억원 증가한 반면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예산은 14억원 감소했다.

박 의원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농과 귀촌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귀농과 귀촌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점을 고려할 때 귀농과 귀촌정책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림사업·지원대상 인터넷 조회로 확인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도입

농업인 스스로 필요한 농림사업을 조회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가 도입됐다. 지난 27일 시작된 맞춤형 서비스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신의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과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개별 농림사업의 성격 및 지원대상자 기준 등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자가 전답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이나 예비귀농인 등 일반인이 연령·경작예정 작물 등 영농계획에 관한 간단한 입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상사업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수해가능 사업목록 확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정보와 사업시행지점의 지원대상자 정보를 상호 조합해 해당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과 올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 수 있다. 사업안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102개 농림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점의 요약본과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서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에 접속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리·밀 종자 신청하세요

미소독 종자 25일·소독 종자는 27일까지

올해 파종할 보리와 밀 종자를 공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급량은 흰찰쌀보리 270t, 영양보리 97t, 금강밀 123t, 백중밀 182t 등 4개 품종 672t이다.

전남도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종자를 신청할 때는 소독·미소독을 구분해 미소독 종자는 25일까지, 소독 종자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종자는 9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보급종 가격은 갈·청보리 소독 종자 20kg당 2만8200원, 미소독 종자 2만6750원이다. 쌀보리는 소독 종자 2만8540원, 미



보리

소독 종자 2만7090원, 밀은 소독 종자 2만9940원, 미소독 종자 2만849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2-3971)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펜션·찻집·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연수원 적합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귀농/귀촌 전남지역 제1순위 주위, 전원주택 단지등 개발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22억원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8개월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공동중개 환영 H.010-3605-5000

- 19평 - 2013년 신축
-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 매매 - 1억 500만원
- (시세/분양가 - 1억 3000만원 정도)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파크 빌라

- 34평 - 2013년 신축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 대출 1억 1천만원 안고
- 매매 - 1억 6500만원
- (시세/분양가 - 1억 9천만원 정도)

주인직매 H.010-3605-5000

최고위치·근린상가

현재, 빅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7층중 7층 120평
- 레스토랑/레스토랑/커피/커피전문점/호프/PC방/헬스장 재즈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매매-5억 7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60평 분할 매매-3억원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60평 분할 임대-보 5천에 월 170만원



공동중개 환영 H.010-3605-5000